축산 뉴우스

천호통산 신공장 준공
-시간당 60톤 생산으로 현대식 시설 완비-

〈이 계조 회장〉

〈김 명근 사장〉

〈류 달영 총재〉

〈정 태원 회장〉

〈주〉천호통산(대표 김명근) 인천사료공장 준공식이 지난해 12월 17일(토) 인천시 중구 항동 신공장에서 임직원과 관련업계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국민의례에 의해 시작된 이날 준공식에서는 김영환사장의 경과보고, 이계조회장의 식사, 표창·감사패 증정, 사료협회 정태원회장의 축사, 농업기술자협회 류달영총재의 치사, 심볼마크 제작, 직원 인사, 리셉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계조회장은 식사에서 앞으로 양계자원수출국으로 변모하는 일익을 담당할 것을 결의하고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류달영총재는 치사를 통해 부화장으로 출발해 한국축산을 주도하고 세계로 발돋움하는 성장을 치하하고 더욱 번성할 것을 기원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신공장 건립에 공이 큰 천호기계〈주〉 신현교사장에게 표창패를, 동아중건설 임진환대표, 일화전선공사 임형무대표, 오진양행 정진국사장, 신건축설계사무소 신범

식대표, AFM의 Flank. W. Flbuld에게 각각 감사패를 증정했다.

〈주〉천호통산은 천호그룹(회장 이계조)의 일원으로 신공장을 1981년 10월 착공하여 82년 12월 17일 준공까지 연인원 2만5천명의 국내외 인원의 노고로 곡류, 박류용 사이로와 벌크시스템, 펠렛사료 등 시간당 6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초 현대식 사료공장을 건립하게 되었다.

동사는 앞으로 인테그레이션 사업의 정착, 축산물 원가절감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축산식품 개발로 식생활개선에 기여, 지속적인 기술교류로 균등한 성장에 기여 등 4대 목표로 축산의 새장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만요리전문가 초빙 요리강습회 개최

-식생활 개선운동 돼지고기, 닭고기 위주로-

△대만 요리전문가 초빙 요리강습회

축협중앙회(회장 김일로)는 식생활 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자유중국의 세계적인 요리전문가 부·페이 메이(Fu Pei mei)여사를 초빙 지난해 12월 16~17일 양일간 서울 청진동소재 서울농협 강당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요리강습회와 시식회를 개최하였다.

중국 최초의 요리학교 설립자 이기도 한 부여사는·이번 강습회에서 돼지갈비스테이크 등 돼지고기요리와 닭강정 등 닭고기요리에 대한 강의를 하였는데 가정주부, 요리전문가, 보도기관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밖에도 이번 강습회에서는 강사로 한국 식생활개발연구회 회장인 왕준연여사도 함께 수고한 바 있다.

축산관계관회의 개최

-'83년도 축산진흥사업 실시요령 시달-

농수산부는 82년도 축산 및 잠업진흥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83년 사업계획과 실시요령 등의 시달을 위한 각시도 식산국장 및 관계관 회의를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농수산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농수산부 축산국장, 특작국장을 위시한 관계관, 농촌진흥청 관계관, 각시도 식산국장, 축정과장, 잠업과장과 축협 등 산하기관 관계자, 본회를 위시한 관련단체장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83년도 축산진흥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거 각 단위사업별 세부지침에 따라 적격사업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사업성과 거양은 물론 획기적인 축산진흥을 이룩하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본회에서는 황인옥전무가 참석한 바 있다.

도계장 신규허가 억제

-과당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농수산부는 일부지역의 도계장 과다현상으로 도계장간의 물량확보를 위해 수수료 할인등 과다경쟁으로 도계유통개선업무 정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도계장 신규허가를 억제할 예정이다.

농수산부의 각 시·도지사에 내린 '83년 축산진흥 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시달에 의하면 도계장 신규허가 수요공급문제, 근대화된 시설설치여부, 기존도계장과의 경합관계 환경보전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 및 정상운영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농수산부와 사전 협의 후 허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 농수산부는 부실 도계장 난립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베이어 시스템(conveyor system) 시설을 갖추지 않은 도계장 허가는 지양할 것을 시달했다.

주요원자재 비축강화

-생고무·우지등 경기회복대비-

상공부는 금년의 세계경기가 다소 상승하면서 국제원자재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생고무·우지·면사등 주요원자재의 비축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상공부에 의하면 지난 81년과 82년에는 세계경기침체에 의한 국제시세하락으로 원자재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수요증가와 함께 가격도 상승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비축제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상공부는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생산업체들로 하여금 당해 원자재시세의 해외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 비축물량을 늘리도록 하고 해외원자재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자연·건강식품 단속기준 마련

-의약품「행세」·과대선전 못하게-

보사부는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각종 「자연건강식품」 가운데 상당수가 의약품인 것처럼 효능표시를 하는 등 과대선전으로 일반소비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지적, 이에대한 단속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함께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각종 효소류 식품, 녹조류 등의 특이 식물성식품, 토룡환, 상어간유등 동물성 식품등이 장수식품, 당뇨식품, 항암식품, 건뇌식품, 미용식품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건강식품 가운데 상당수는 식품의 범위를 넘어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의약적 효능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 형상도 과립이나 분말등으로 의약품인양 만들어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도 일상 식품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다.

이들 식품들은 특히 「기적의 식품」, 「경이적 식품」, 「만병에 특효식품」 등의 문구를 붙여 난치병, 만성병, 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신장염, 간경화증, 뇌혈관증, 위장병등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과대선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식품 가운데는 이같은 광고가 약사법에 저촉되자 포장이나 광고등에는 의약품적인 효능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대신 소비자에게 수교되는 자료에는 약효를 기재하거나 체험기 성분소개등을 하는 변칙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보사부는 이같이 건강식품이 무질서하게 범람하자 건강식품의 성분 내용량 조리음식법 보존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며 지나친 효능표시로 의약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과대광고행위에 대한 단속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美國·日本등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건강식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무공해 천연식품에 대한 국민의 기호가 높아지자 국민보건적 측면에서 이들 건강식품의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유명백화점에서는 무공해 계란도 판매되고 있어 일반계란은 공해계란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83겨울농민대학
- 4박 5일간, 새해 영농방향 제시 -

농민대학은 17년전인 1965년에 처음 실시, 농민들의 절대적인 호응으로 17년간 1백30기에 무려 1만5천6백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농교실이다.

특히 82년도부터 86년까지 실시되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있어 82년을 마무리 짓고 83년부터는 정부에서도 복합영농체제의 확립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높인다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농업은 또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83겨울농민대학은 이러한 정부의 시책과 현실에 맞도록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현실적인 과제를 엄선하여 권위있는 강사진으로 대폭 과제를 개편하였다.

또한 농민대학 참가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농민, 농촌여성, 승려, 수녀는 물론 농고생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강의는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강의실에서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농업기술자 협회 (794-7270)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반별	연수기간	과 별	정원
전기반	2월1일(화)~2월5일(토)	채소원예과 화훼관상수과 한우·낙농과	각80명
후기반	2월5일(토)~2월9일(수)	사과·과수과 약초·특수영농과 양돈·양록과	각80명

'83 전국 위탁점 사업전진대회
-서울미원, 쉐라톤 워커힐에서 -

△새해의 사업성장을 다지기 위한 서울 미원 '83 전국 위탁점 사업전진대회

서울미원〈주〉(대표 임철수)은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의 사업성장을 다지기 위한 '83 전국 위탁점 사업전진대회를 지난 12월 22일 쉐라톤 워커힐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원은 사료사업의 전망, 미원의 사업의지와 83년 위탁점 사업성장을 다짐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영업실적분석, 우수위탁점 시상등을 실시했다.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최우수상 : 용인위탁점 이규봉소장
우 수 상 : 동두천위탁점 고홍태소장
마석위탁점 김창수소장
장 려 상 : 원주위탁점 김호진소장
파주위탁점 송영갑소장
광주위탁점 최지환소장
서부위탁점 이승범소장
공 로 상 : 마석위탁점 김창수소장
특 별 상 : 천안위탁점 서충열소장

농민82% 농약중독
-30.8% 요양·치료해야할 상태-

농민들의 82%가 경·중을 막론하고 농약에 중독돼 있음이 밝혀져 농약사용에 따른 안전교육과 치료대책이 시급하다. 국립보건원 병독부 이한일씨등 5명의 조사팀이 경기고양군, 충남 당진군, 전남 무안군등 3개지역 농민94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농약중독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 19.1%만이 정상이었고 81.9%가 농약에 중독된 상태로 나타났다.

81.9%의 중독자중에는 51.1%가 가벼운 중독자로 나타나 별문제는 없었지만 26.5%가 중증중독으로 휴식과 요양을 요하는 상태였고 특히 나머지 4.3%는 의사의 치료를 시급히 요하는 중독자였음이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京畿도가 정상 42.9%, 경증 57.1%로 위험률이 적은 반면 忠南은 정상 22.6%, 경증 52.8%, 中症 26.4%, 重症 3.8%, 全南은 정상이 겨우 8.8%인데 비해 경증 44.1%, 中症 29.4%, 重症 5.9%로 나타나 수답면적이 넓은 지역일수록 중독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반은 중독자의 대부분이 농약살포시에 두꺼운 옷으로 피부를 보호하지 않거나 피부를 노출시킨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농약살포시 농민들에 대한 농약사용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약에 중독되면 호흡상태가 불안정하고 미열이나며 속이 매스껍고 때에 따라 피부에 발진현상이 나타나고 경증중독상태가 계속 누적되면 불치의 중독상태로 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전문의사들의 얘기다.

따라서 의사들은 농약중독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충분한 안전교육외에도 1년에 최소한 2회 이상의 정기검진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소련, 계란생산 크게늘어
-채란양계산업 확장 예정-

지난 10년동안 소련의 채란양계업은 다른 어떤 축산분야보다도 크게 성장하였다. 즉 1975년 1억 5,000만 상자(360개/1상자)에 불과했던 계란생산량이 1981년에는 1억9,700만 상자로 늘어났으며 1인당 계란소비도 245개로 증가되었다.

이와 같은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Finland, Poland, Bulgaria, Hungary등으로 부터 상당량의 계란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소련은 1980년도에 204만 상자에 계란을 수입했다.

이에 따라 소련은 현재 진행중인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1981~5)과 차기계획기간(1986~90) 중에는 각각 2억상자와 2억1,800만 상자의 계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란 양계산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시험관송아지 실용화

우리나라에서도 소의 수정란 이식사업이 실용화 문턱에 들어섰다. 농산부에 의하면 그동안 소를 대상으로한 수정란 이식 연구는 국가기관인 국립종축장및 농촌 진흥청 축산 시험장 민간기업인 두산개발과 성진목장 등에서꾸준히 추진돼 왔는데 최근 두산개발에서는 국내최초의 시험관 송아지를 얻는데 성공을 했고 다른 곳에서도 수태가 확인되는등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수정란 이식이란 체내 또는 체외에서 수정된 난자를 다른 개체에 이식시켜 출산케 하는 것인데 특히 소와같이 새끼를 적게 낳는 동물의 품종개량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 즉 품종이 우수한 암소가 있을 때 자연출산을 하도록 두면 일생동안 5~6마리를 낳는데 그치게되나 수

정란을 다른 암소에 이식시켜 출산케 함으로써 우수한 유전형질을 이어받은 송아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국대 정길생교수팀의 기술지도로 수정란 이식연구를 해온 두산개발은 이러한 방법으로 최근 3마리의 송아지를 출산한 외에 6마리가 현재 임신중에 있고 국립종축장, 축산시험장, 성진목장등에서도 수태한 암소가 금년 4~5월경이면 송아지를 낳는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같은 수정란 이식술이 일반보급되려면 수정란의 냉동 및 용해, 암소의 배란유도 기술등이 좀더 진전돼야 하므로 상업적 이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년 더 걸릴 전망이다.

그런데 최근 정액부족으로 당분간 더욱 많은 정액을 수입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업계에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올림픽식품 개발

- 전통성 살리고 외국인 구미에 맞게 -

농수산부는 88올림픽에 대비해 식품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18개올림픽 식품을 선정, 가공기술을 개발해 맛과 상품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림픽식품으로 선정한 18개 품목은 우리나라의 전통식품과 외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품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단순가공만을 해왔던 것을 한걸음 발전시켜 농어촌개발공사가 가공기술을 연구토록 하고 식품회사를 통해 실용화시켜 보급할 계획이다.

농수산부가 이번에 올림픽식품으로 정한 18개 품목은 ▲신제품으로 인삼혼합 야채주스·보리청량음료·건조본햄·콘포크해쉬·훈제어류등 5개 ▲전통식품중 수정과·잣죽·오가피제품·약과 등 4개 ▲선물용품으로 전해태·맛김구절판세트 등 3개이며 ▲두부·감자스낵·어묵·치즈·햄버거·오리고기통조림 등 6개는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당초에는 양송이통조림·도토리묵·인삼주등을 포함, 모두 63개 품목의 올림픽식품을 개발할 것을 고려했었으나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급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18개 품목만을 추려 집중 육성키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런데 日本의 경우 지난 64년 개최된 東京올림픽을 계기로 가공식품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식품수요패턴이 변화해 우리나라 역시 88올림픽이 식품산업을 재편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식생활개선 서울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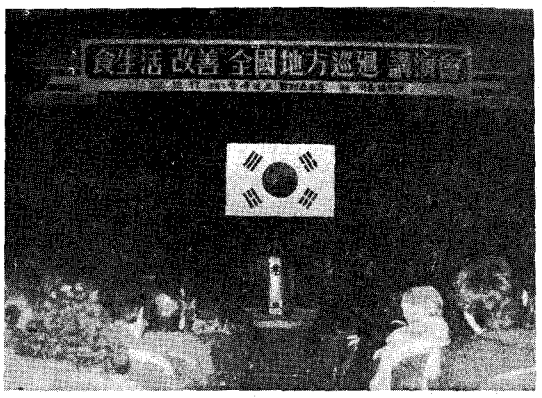
한국일보社와 日刊스포츠가 주최한 「식생활개선전국순회」 서울강연회가 12월17일 하오2시 세종문화회관별관에서 2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유태종교수(고려대)의 「식생활과 장수법」 이영남교수(경희대)의 「식생활개선과 영양관리」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일보社는 범국민 식생활개선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인천을 시작으로 수원·춘천·청주·전주·광주·대구·부산등 전국의 9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강연을 했다.

「식생활개선으로 건강하게 삽시다」라는 책자를 배포, 열띤 반응을 얻었으며 매 강연회마다 참석인원은 평균 1천5백명씩에 달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은 이병석 양정국장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한국일보사가 범국민 식생활개선 캠페인을 민간주도 운동으로 실시하는데 감사한다』고 말하고 『식량의 자급자족 못지않게 비과학적인 식생활을 과학화 하는 문제야말로 국민건강과 장수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강연에서 두교수는 건강장수의 4대요건은 식생활개선·적당한운동·적당한 휴식·정신적안정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식생활개선을 위해 종래의 쌀과 육식취향의 식생활에서 벗어나 혼분식과 해조류·콩류·고구마·감자·우유·당근·채소·과일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체력관리에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식생활 개선 서울 강연회

금년식량 6.4% 증산계획

-쌀은 3천8백만섬 목표-

농수산부는 쌀, 보리등 주곡을 비롯, 콩 감자류, 잡곡등 금년도 식량생산목표를 작년실적 4천9백49만1천섬보다 6.4%가 늘어난 5천2백65만9천섬으로 확정하고 이를 달성키위해 논물가두기등 용수원확보와 영농교육강화 경작실태조사등 지원시책을 이번 농한기 부터 적극 추진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농수산부가 마련, 시달한 금년도 식량증산계획에 따르면 쌀은 작년실적 3천5백93만8천섬보다 5.7% 늘어난 3천8백만섬을 계속추진하고 보리는 7백14만1천섬으로 작년보다 20천섬과 1백35만9천섬으로 각각 4.4%, 0.6%를 증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익성 저하로 재배면적이 줄고있는 감자류는 3백69만9천섬으로 작년보다 5.2%가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문회의

-유통개선 기본계획 검토-

동연구원(원장 김보현)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국권 농수산물 유통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의 방향을 검토하고 국내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지난 12월4일 각계의 농수산물 유통관계 전문가 13명을 초빙,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편 상황변동이 심한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주로 사용되었던 목표 연도를 바라보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나가는 전방계획수립(forward planning)방법 뿐만 아니라 목표 연도로부터 기준연도로 역산하여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나가는 후방계획수립(backward planning) 방법이 동시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의되었다.

또한 본연구에 있어서는 생산측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농축수협의 유통활동 전개방향제시, 산지수집기능의 강화, 유통통계의 개선, 유통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각계의 농수산물 유통분야 종사자와 학생들에게 참여기회가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제기되었다.

대만, 옥수수안정가격 132 $로 조정

대만은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지난 11월 10일을 기해 수입옥수수의 국내가격을 톤당 132 $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로서 비육돈 후기사료의 공장도가격은 kg당 178원 80전, 브로일러 후기 230원95전, 산란사료 193원 70전으로 각각 조정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135 $이다.

연말 성수품가격 안정세
-돼지·쇠고기만 강세 지속돼-

年末성수품 30개를 대상으로 서울지역 소비자가격을 전년동기와 비교한 결과 11개 품목만이 올랐을 뿐 조사대상의 63%인 19개 품목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떨어지거나 변동이 없어 물가 안정은 뿌리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연말물가안정 속에서도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 추석때 크게 올랐던 쇠고기는 계속 강세를 유지, 6백g당 4천 8백원으로 추석때 가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年末보다는 6백원이 올랐다.

또한 돼지고기는 6백g당 지난해보다 50원상승한 2천3백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가격은 연동고시가격인 2천2백원보다 1백원이 웃도는 것이며 추석때보다도 2백50원이 뛴 것으로 가격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와 年末성수품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농수축산물의 가격등락이 심할뿐 공산품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설탕, 소주, 밀가루, 화학조미료등은 오히려 내렸다.

작년 연말에 비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품목은 마른명태로 황태 20마리가 지난해 5천원에서 올해는 7천원으로 2천원(40%)이 껑충뛰었으며 이밖에 보리쌀과 사과는 각각 33.3%, 신사복 21.8%, 무우 20%, 쇠고기와 배추는 각각 14.3%가 올랐다.

한편 쌀값은 일반미의 경우 中品 30kg한가마가 6만원으로 지난해 가격과 똑같은 반면 정부미는 상품 10kg이 7천10원으로 지난해보다 2백만원이 상승, 등락이 엇갈렸다.

초지조성비 147억 투입
-공유지·그린벨트 개발억제-

정부는 새해부터 산간임지 초지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단계로 총사업비 1백47억원을 투입, 1만정보의 초지를 조성키로 하고 국공유지와 그린벨트개발을 가능한한 억제하되 사업대상자선정기준에 해당지역내 거주연한과 소의 사육경험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수산부가 확정, 전국시도에 시달한 83년도 초지조성방안에 따르면 금년중 5~20정보미만규모의 공동초지 2천정보, 1~50정보미만규모의 일반초지 7천정보, 3백정보내외 규모의 단지초지 1천정보등 1만정보를 조성키로 했다.

초지조성을 위한 지원자금은 공동초지에 10억3천2백만원, 일반초지 84억원, 단지초지에 33억3천2백만원등 1백27억6천4백만원과 82년도까지의 기성초지 사후관리자금 19억3천2백만원등 도합 1백47억2천6백만원을 책정했다.

초지조성 대상자는 ▲ 조성대상지를 1정보이상으로 하되 ▲ 조성후 입주할자 또는 소사육시설을 2km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과거에 도입 젖소나 육우 입식후 부당하게 처리한 경력이 없는자 ▲국공유지개발은 81년말 이전부터 관할시군에 거주한자와 조성규모는 10정보미만에 한하되 관리할재력과 함께 3년이상 소를 사육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 고속도로변과 그린벨트내 국공유지는 개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동초지(임간초지)는 ▲부락인근의 5~20정보미만을 1단지 조성가능지로 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부락민 5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며 ▲ 경제림으로 조성한 임지와 고속도로변의 2km이내와 그린벨트는 제외키로 했다. 단지초지는 ▲인근에 1천정보 이상의 개발가능한 땅이 있는 3백정보규모로 ▲ 개발대상지가 국공유지인 경우 도지사가 기준을 정해 개발대상자를 공모해서 선정토록 했다.

초기조성지원금은 정보당 조성사업비 기준을 임간초지는 종자·비료·목책설비등 정보당 51만6천원, 경운초지는 1백20만원, 불경운초지는 91만8천원으로 정하고 이 사업비를 기준으로 일반초지는 10정보미만인 경우 50%무상보조 50%융자지원하고 연간 50정보이상개발시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체보조, 융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동조치는 전면적의 60%는 무상보조, 40%는 융자지원하고 단지초지는 50%를 무상보조, 50%는 융자지원하며 8km이내의 전기시설 가설과 4km이내의 도로시설비는 보조지원키로 했다.

농수산부당국은 초지조성붐에 따른 부실화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공유지보다는 사유지개발지원을 우선하고 일반초지의 경우도 3정보미만은 정부지원금과 소입식후 다목적으로 초지를 전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정보이상에 우선권을 주는등 소규모 개발을 위주로 실적을 쌓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년도 도별 사업면적은 강원도가 1천8백60정보로 가장 많고 전남·경북이 1천4백20보정보씩, 제주 1천1백20정보, 경남 9백70정보, 충남 8백80정보, 전북 4백90정보, 충북 4백70정보, 경기 3백70정보로 돼있다.

농수산물 판매장 완공
- 12월23일 건물현판식 가져 -

소비지의 농수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과 비축농산물을 공매하는 농수산물 판매사업장 건물이 완공돼 지난해 12월 23일 현판식을 가졌다.

농어촌개발공사 병설기구인 농수산물 가격안정 사업단이 고추·참깨·땅콩등 비축 또는 수입농산물과 건명태 건오징어 건멸치 미역, 김등 비축 수산물판매장으로 쓰여질 이 판매장(동작구 노량진동 13-8 노량진 수산도매시장구내) 은 지하1층, 지상3층(연건평 4백30평)이다.

이제까지는 비축농산물 공매를 노천에서 실시, 고객에 불편을 주고 상품보관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패스트푸드업계 고전
- 경영미숙·식생활습성에 맞지않아 -

86년과 88년 세계적인 스포츠행사를 앞두고 한국진출이 늘고 있는 즉석 제공음식(패스트푸드)업계가 과당경쟁과 우리나라 식생활습성에 적합하지 않아 문닫는 업체가 늘어나는 등 운영난을 겪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79년말 햄버거·치킨·음료등 간이음식을 판매하는 롯데그룹의 롯데리아가 개점된후 아메리카나, 윈첼도너츠, 돈킹도너츠, 파이오니아치킨등 약 10개업체가 외국과 기술제휴를 하거나 독자적으로 즉석제공음식업체인 사업을 전개, 소비자들의 외식풍조가 늘어나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패스트푸드운영의 기술축적이 없어 문닫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K핫도그체인은 부도가 났고 C아이스크림체인은 폐점했으며 F아이스크림체인도 판매망을 구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社도 현재 서울과 지방에 19개점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점포확보 목표40개에 비해 절반을 밑도는 실적으로 건물임대·점포관리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밖의 업체도 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경영난에 빠져있다.

86년과 88년의 스포츠행사에 한국을 방문할 외국인의 수만으로도 사업전망이 좋은 것으로 예상된 즉석제공음식업계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식생

활 습성에 맞지않은 품목을 취급하거나 여러개의 점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영기술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패스트푸드의 주종품목인 햄버거 종류는 우리나라 고기값이 외국에 비해 비쌀뿐만 아니라 시세와 공급의 불안정으로 원가압박을 받아 수익이 줄어들고 있으며 소비자가격은 매번 올라 대량판매로 이익을 높이는 패스트 푸드의 대중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축산관계잡지 편집인 모임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개최-

축산업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축산관계잡지 편집인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지난 12월16일 대한양돈협회 회의실에서 월간양계를 위시해 축산진흥, 월간양돈, 현대양계, 서울우유의 편집 실무진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같은 의식, 같은 사명감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서로가 상호교류가 미비한 점을 자인하고 앞으로 매월 15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한층 질과 양을 겸비한 축산전문지를 만들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배합사료가격 3 ~6 %인상

-축협사료도 금년초에 올릴듯-

배합사료가격이 최저 3%, 최고 6%까지 일제히 올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합사료가격을 품목에 따라 최고 6%까지 인상했고 이어 중소기업도 3~5%수준으로 올리는 등 업계 전체가 배합사료가격을 인상했다.

업계의 이같은 인상은 전체사료원료비중이 12~13%에 달하는 강피류가격의 인상과 국내산 옥수수사용에 따른 추가부담과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최근 백강이 kg당 63원에서 93원으로 47.6%, 소맥피가 77원에서 96원으로 24.7%나 인상됐다고한다.

국내산 옥수수는 정부가 8만톤을 수매, 축협사료공장을 포함한 사료공장이 6만6천4백톤을 사용토록 하고 이중 일반배합사료업계에 5만2천톤을 배정했는데 수입옥수수가 톤당12만원수준인데 반해 국산옥수수는 30만원선이어서 차액 18만원씩 적어도 1백억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업계는 7~10%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양축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율을 요인발생율보다 훨씬 낮게책정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료업계는 그동안 과잉생산에 의한 과당경쟁으로 덤핑판매를 함으로써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축협사료에 있어서도 가격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년도 사료수급계획 확정

-올 사료 1천2백 76만6천톤 공급-

농수산부는 올해 농후사료 6백38만6천톤, 조사료 6백34만6천톤등 모두 1천2백72만6천톤의 사료를 공급키로 했으며 농후사료중 배합사료는 지난해 당초계획 3백70만톤보다 30%가 늘어난 4백80만톤을 공급한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농후사료중 배합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1백58만6천톤은 농가 자급사료로 충당키로 했으며 조사료 6백34만톤은 목건초 4백50만1천톤, 답리작물 38만4천톤, 청예작물25만5천톤, 농산부산물 1백20만톤등으로 충당한다.

이에따라 농후사료는 차년도 이월분 93만8천톤을 포함 모두 7백32만4천톤을 공급케 되는데 유별로는 곡류 4백17만2천톤, 강류 1백61만8천톤, 식물성박류 85만2천톤, 동물성단백

질 13만 4 천톤, 무기물 24만톤, 기타 30만 8 천톤으로 되어 있다.

배합사료는 차년도 이월분까지 총수요를 5백73만 8 천톤으로 보고 전년이월분 72만톤, 국산 1 백19만 5 천톤, 도입분 3 백82만 3 천톤 등을 공급한다.

금년도 사료생산을 위한 원료는 모두 6 억 3 천 5 백22만 5 천달러를 들여 3 백94만 7 천8백톤을 도입케 되는데 도입물량은 곡류는 옥수수 2 백49만 7 천톤, 수수 46만 8 천톤, 대맥·소맥·GSP·타피오카등 기타곡물 15만 6 천톤이며 대두 55만 5 천톤, 대두박·채종박등 식물성박류 24만 6 천톤, 어분등 동물성단백질 1 만톤, 우지 1 만톤, 사료첨가제 3 백톤, 그리고 대용유는 완제품 5 백톤, 탈지분유 3 천톤, 유장분말 2 천톤등이다.

축협, 은행업무 실시
-양축가 경제활동등 지원-

지난 12월16 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과 한은법을 개정,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금융기관으로 포함함으로써 축산중앙회도 금년부터 은행업무를 실시케 됐다.

축협은 이로서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내·외국환과보호 예수, 회원 또는 조합원의 사업에 관련된 지급보증및 어음할인, 비회원에 대한 대출등의 은행업무를 하게 된다.

또 중앙회·도지부 은행업무와 함께 지역축협조합의 상호금융업무도 재무부와의 협의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어 금년에는 본격적인 여수신업무를 하게돼 양축가의 필요자금을 조달 경제활동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축협은 이러한 금융업무에 대비해 그동안 착실한 준비 작업을 해왔는데 서울 2 개소와 지방 8 개소에 1 차업무 취급점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은행업무에 따른 직원 교육도 실시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축협은 은행업무개시 시기를 금년도 2·4 분기로 계획, 이에따른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축협, 배합사료공장 부가가치세 과세
-금년부터 시행령 일부조정-

축협산하 배합사료공장이 금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케 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보면 종전에는 제38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중 12호에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는 면세혜택을 받는다.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금년부터 식품가공사업부분과 함께 중앙회의 사료제조사업부분도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케 되었다.

그러나 과세범위는 축협중앙회서 직영하고 있는 인천, 부산, 군산 등 3 개지역 배합사료공장에만 해당되고 각 축협단위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료공장은 종전대로 면세혜택을 받는다.

관세 단계적으로 균일화
-정부 금년부터실시 86년에매듭-

정부는 산업구조를 경쟁력 위주로 개편하고 자유경쟁을 통한 문호개방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출용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최저 0%, 최고 1 백%까지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균일화할 방침이다.

관세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관세를 이이상 보호정책의 수단으로 삼지않고 중립적인 均一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산업간의 경쟁력을 유

도하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우선 금년에 모든 대상품목의 절반규모의 관세를 20%로 통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관세의 균일화를 단계적으로 이행, 86년까지는 완전히 균일화할 예정이다.

업계단신

○**중앙축산〈주〉 (대표 강태현)** : 서울사무소 본점이 82년 12월20일자로 인천공장으로 통합 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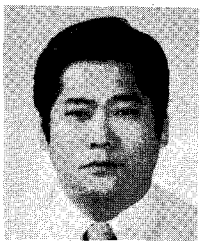
○**고창양계 (대표 신홍종)** : 고창양계 대전사무소가 개설되었으며 (822-6511) 서울 사무소 전화 국번이 변경 (583-2550)되었다.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 김길원)** : 동회의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증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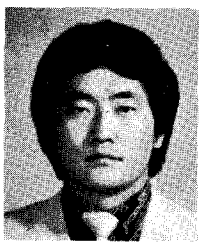
증설전화번호 : 724 - 2475

○**서부배합사료〈주〉** : 동사는 83년 1월1일부로 정규헌 상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승진 발령했다.

정규헌이사는 68년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근 10여년간 동사에서 일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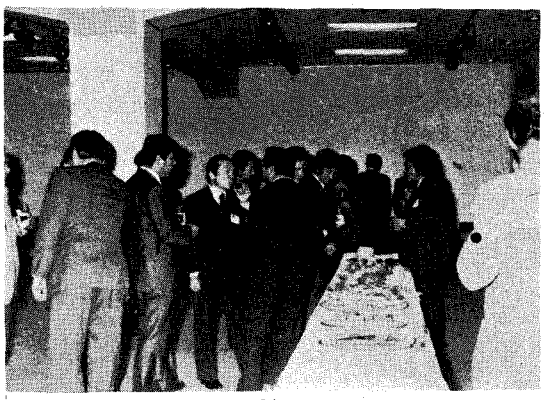
〈정 규헌 이사〉



〈최 명래 계장〉

○**천호통산〈주〉 (대표 김 명근)** : 동사는 영업 업무의 강화로 최명래계장(전 대한사료 근무)을 영업부에 특채했다.

○**USFGC (지부장 박영인)** : USFGC(미사료곡물협회)는 아홉번째 메모용 수첩을 발간 배포했으며 지난 12월15일 미국공보원에서 송년 한·미 축산사료인사모임을 가졌다.



△USFGC 송년 인사모임

○**복현축산공사 (대표 정해윤)** : 동사는 좀더 혁신적이고 과학적 양계에 폐사율 저하와 사료낭비 및 사료효율에 크나큰 이익을 폐하고자 새로운 사료통받이를 개발했다. 관심있는 분들은 국제감별학원으로 (62-6175)문의하면 된다.

○**대한양계협회 부산경남지부 (지부장 김중경)** : 본회 부산경남지부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 54 - 2801

○**호남축산 (대표 김석재)** : 초생추 분양, 가축약품, 축산기구 취급업체인 호남축산이 지난 12월5일 문을 열었다.

사무실 : 광주시 서구 백운동 647번지 23호
전 화 : 6 - 7087

○**대한수의사회 (회장 윤쾌병)** : 대한수의사회는 전화번호를 12월18일부로 다음과 같이 변경했다.

대 한 수 의 사 회 : 392 - 2526
서울시 수의사회 : 393 - 3160
한수약품주식회사 : 393 - 0647

○한일농원(대표 최한순) : 한일농원은 사세확장으로 북부출장소를 개설하여 그 현판식을 지난 11월23일에 가졌다. 이로써 우리나라 양계업계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오던 포천 및 운천 등 북부지방의 사양가 여러분은 우량초생추를 공급받음에 한시름 덜게 되었다.

소장에는 김병남씨가 취임했으며 김병용씨와 홍상희씨가 함께 노력한다.

또한 초생추의 공급뿐 아니라 질병 및 사양관리 점검 그리고 적기의 백신접종등 모든방법을 동원한 아프터 서비스로 사양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동사 영업부장 함경섭씨와 판매과장 박우탁씨가 참석했으며 기타 북부지방 양계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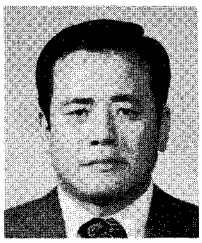
주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41번지
전화번호 : 포천 3832

◁ 한일농원 북부출장소 현판식

○장안축산회(회장 이병혁):장안축산회는 12월18일 건국대학교 성관 회의실에서 한해를 결산하는 제3회 학술세미나 및 망년회를 개최했다.

○한협축산(대표 박준영) : 동사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상호를 1월1일부로 한협에서 한협축산으로 개명했다.

○대한양계협회 경북지부(지부장 박규병) : 경북지부 총무로 노양환(계명실업전문대 졸업)씨를 채용했다.



〈김 길원 사장〉

〈노 양 환〉

○한국바이엘화학〈주〉(대표 김길원) :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주관하는 농업 진흥회관 건립기금 모금에 한국바이엘화학에서는 12월8일 여술연 전무와 계봉구 학술부장이 동사를 대표하여 1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해 12월9일 김길원사장은 독일 및 동남아시장을 살피기 위해 출국하여 11일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장동향을 시찰하고 22일 귀국했다.

○녹십자수의약품〈주〉(대표 장인상) : 녹십자수의약품 여직원회 "녹우회"는 지난 12월12일 처음으로 시도한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무사히 마치고 19일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에 있는 원생 약60명 가량을 두고 사재로 경영하는 송암보육원에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불우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신림장학회에 기탁했다.

○부국사료〈주〉(대표 한호섭) : 주식회사 부국사료는 강원도지방의 사세확장으로 원주 원성출장소(소장 박대진)를 개설했다.

☎ 43-7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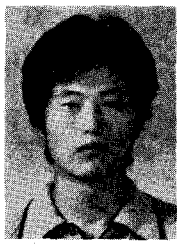
○박근식박사 학위 수여식 : 박근식농학박사 학위수여식이 지난 12월20일 많은 학계및 업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림정에서 열렸다.

대한양계협회와 세계가금학회가 마련한 이날 수여식에서 그동안의 박근식박사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이어서 열린 축하연에서는 쌓인 피로를 풀고 모두들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대한양돈협회 (회장 전동용) :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는 업무강화로 총무과장에 이주석씨를, 기획부에 배영혜, 편집부에 김정은씨를 특채했다.

〈이 주석 과장〉

〈배 영 혜〉


〈김 정 은〉

○대한제당 〈주〉(대표 민중기) : 대한제당 무지개사료는 단일공장규모로는 우리나라 사료업계에서는 최초로 12월의 사료생산실적이 30,000 M/T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삼화농원 (대표 배선목) : 새해들어 판매조직 강화를 위해 제 1 지역 담당 김기의과장을 영업부장으로, 제 2 지역 담당 이순호기사를 1 지역 담당과장으로, 제 5 지역 담당 박상필기사를 과장으로 전보 승진 발령하고 2 지역 담당에 김충구기사를 3 지역 담당에 이태종기사를 각각 발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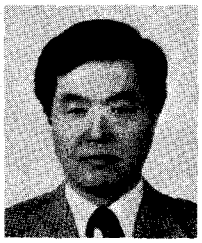
○제일축산 〈주〉 : 업무상 서울사무소를 12월 15일부로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다.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252의 16 동일빌딩 2 층 202호

전 화 : 447 - 8131 ~ 5

○홍성사료 〈주〉 (대표 정태원) : 동사는 금년 1 월 1 일부로 정규원전무를 부사장에, 오재정상무를 전무로, 김종철공장장과 강환호생산부장을 이사로 각각 승진발령했다.

〈정 규원 부사장〉


〈오 재정 전무〉

○ 서울케이지수리센타 (대표 박정태) : 중고케이지 전문취급점인 동사의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변경전화번호 : 854 - 8085

○농수산신보 신년하례회 : 계해년을 맞이하여 농·축산인의 우애를 돈독히 하고 상호 정보교환 및 새해의 설계를 다짐하는 신년하례회가 농수산신보 (대표 한남석)주최로 1 월 6 일 여의도 잠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국회의 김현욱, 오상현, 유용근의원과 송찬원 축산국장, 김일로 축협회장과 본회 황인옥 전무 등 많은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새해에 각 분야에서 열심히 뛸 것을 재삼 다짐했다.

○선진사료 〈주〉 (대표 이원복) : 전화번호가 종래의 752 - 4349 에서 국번만 392로 변경되었다.

○대농산업 (대표 유유수) : 동사는 광주에 지사를 개설하였다.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65-4

☎ 484 - 2222

광 주 지 사 : 전남 광주시 북구 운암동 486-8

☎ 55 - 6683